

한국 무속복식의 조형성 고찰*

- 충남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

유 효 순

혜전대학 의상디자인과 부교수

A Study on the Formative Character of the Korean Shaman's Costume

- Focusing on the Hong-Sung Area, Choong-Nam -

Hyo-Soon You

Assoc. Prof., Dept. of Fashion Design, Hye-Jeon College

ABSTRACT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the formative character of the Korean Shaman's Costume in the area of Hong-Sung, Choong-Nam.

Korean shamanism has been the core of the traditional folk religions, so that it has had a great effect upon the formation of Korean's mind and custom. And its magical power remains unabated even today.

Modern shamanism in the Hong-Sung area has been changed under the influence of the shamanism in the Seoul-Koungki area. Therefore modern shaman's costume in the Hong-Sung area is similar to shaman's costume in the Seoul-Koungki area. Modern shaman's costume in the Hong-Sung area has only 5 or 6 kinds. These consist of Pulsajangsam, Chulik, Kugunbok, Mongduri and Wonsam.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modern shaman's costume and traditional costume in the formative character. Modern shaman's costume in the Hong-Sung area has become simpler in the formative character and more gorgeous in color or adornment than that of the traditional costume.

Key Words : 무속복식(Shaman's costume)

I. 서 론

우리 나라 무속의 시원은 학자에 따라 견해를 달

리하나 일반적으로 고조선의 단군왕검 때부터 존재 하였다고 보는 설이 유력시되고 있다.¹⁾

고대 국가에서부터 존재해온 무속은 고려시대에

* 본 연구는 1999년도 혜전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이르러는 흥왕했던 불교와 도참사상의 영향을 받아 들며 민속신앙으로 만개하였으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유학의 영향으로 지배층에 의해 배타시 되어 무속은 천대를 받게 되었고, 더 더욱이 이러한 경향은 근·현대에 들어서 기독교 및 새마을운동 등 현대화 추진의 영향으로 무속은 배척되어야 할 대상으로 누구나 인식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환경들을 거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속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민중과 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배척 당하던 시절에는 드러내놓고 행해지는 못하였지만 면면히 이어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신봉되고 있으며, 특히 현대에 이르러서는 무속이 문화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학술적인 차원에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 무속에서 굿의 주재 역할을 하는 무인은 입무동기에 따라 강신무, 세습무, 그리고 습득무로 구분하며, 그에 따라 무속에서의 종교의례인 굿의 양상이나 무인의 명칭이 다를 뿐만 아니라 굿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의 종류 또한 다르다.

강신무의 굿에서는 무복은 신을 상징하는 의복이기 때문에, 다양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전통복 중 일부가 착용되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전통복이 희미하게나마 이들을 통해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무인들이 무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복이 전통성을 지닌 채 계승되지 못하여 전통 의복이 왜곡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우리 전통복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복이 계승과정에서의 문제로 원형이 더 훼손되기 전에 현재 생존해 있는 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의 조형성을 고찰하는 것은 전통복식의 보존차원에서 의의가 있는 연구작업일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한국 무속복식 중 충청도 서해 내륙의 중심을 이루는 홍성지역에서 무업활동을 하고 있는 무인들이 착용하는 무복을 조사하여 무복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고, 현재 착용되고 있는 무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홍성지역 무속복식의 조형성을 고찰하기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먼저 한국 무속의 일반

적인 양상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홍성지역의 무속에 대하여서는 이론적인 고찰과 병행하여, 현재 '한국무속문화인협회' 회장인 강노심 무인의 자문을 구하였으며, 강노심 무인을 포함한 10인에 대한 무속에의 입문동기, 무속의 양상 및 무복을 관찰하였다. 무속인들을 관찰한 시기는 1999년 5월에서부터 1999년 7월로, 무인들이 행하는 굿거리와 각 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는 무복을 조사하여 그 중 보편적으로 착용되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복식과 유사한 의복만을 고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전통복에 근거를 두고 조사대상의 무인 모두가 착용하고 있는 무복으로는 불사장삼, 철릭, 구군복, 원삼 및 몽두리로서 이들의 조형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무복들과 전통복과의 조형적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굿에서 사용되는 무구는 무속복식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무구 자체의 종류와 상징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필요하므로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음을 밝힌다.

II. 홍성지역 무속의 특징

1. 한국 무속의 일반적 특징

우리 나라의 무속은 시베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샤머니즘(Shamanism)의 일부로 민간신앙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으로 퍼져 있으며 확고한 신앙체계를 이루고 있는 토속종교다. 우리 무속의 형태는 신을 중심으로 사제인 무인과 그를 따르는 신도로 구성되어 있는 종교적 형태를 이루고 있으나 타종교와 달리 일정한 유일신이 아닌 다신을 섬기며, 굿이라는 의례에서 사제인 무당을 통해 많은 신들의 힘을 빌어 현실생활에의 길복을 추구하는 현실종교로서의 특징을 지닌다. 우리 나라 무속에서의 종교의식인 굿은 사제인 무당이 신을 만나 인간의 소망을 비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은 현실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한 절차가 필요하게 된다. 굿을 할 장소는 신이 하강할 수 있는 특정한 성소이다. 무속에서 굿을 행하는 장소는 무당 개인의 신단일 수도 있으며 신당이나 민가 등으로 구분된다. 굿

은 신에 대한 소명적 봉사로 신과 인간의 상봉·대화를 의미하고 이것으로부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필요에 의해 무는 곳을 통해 신을 초대하여 대화의 기회를 갖게 된다.²⁾

이처럼 우리 나라의 무속양상은 매우 독특하여 무인에 따라 섬기는 신이 다르며 신의 종류도 무수히 많고 무인을 부르는 호칭도 다양한데, 무인의 명칭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무당으로 이는 여자무인에 대한 호칭이며, 남자무인의 경우에는 박수 또는 박수무당이라고도 한다. 이 외에도 지역에 따라서 만신, 기자, 제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진다.

그리고, 무속의 종교의식인 굿을 행하는 방법도 일정한 것이 아니라 무인이나 지방에 따라서 각기 다르며 굿에서 착용하는 무복도 다르다.

1) 무인의 유형

우리 나라 무인의 유형은 무에 입문하게 된 형태에 따라 크게 강신무, 세습무, 습득무의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³⁾

강신무란 신이 몸에 내림으로 해서 무병을 앓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여 신어머니를 만나 내림굿을 받고 무술을 배운 무당을 말한다. 이들은 무가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병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특이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위 신의 뜻에 따라 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무당을 진짜 무당이라고 하며 다른 무당에 비해서 영험이 크고 따라서 주변에 대한 영향도 크다.⁴⁾

강신무는 입무 후에 강신한 몸주신이 있으며 신관이 뚜렷하고, 가무로서 강신교령하며 영력에 의해 점복을 행한다. 굿을 할 때 무당은 신을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신의 역할까지도 대행하는 신과의 일체화 현상을 보인다. 무당이 신의 역할을 하므로 무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바로 신이 하는 말로 간주된다. 그것을 공수라고 부른다. 굿에서 무당을 신격화하므로 대형의 신간이 사용되지 않거나 간소화된 상태이다.⁵⁾ 강신무의 굿에서는 무복이 화려하고 굿에 사용되는 소도구가 다양하다. 굿에서는 각 거리마다 신을 상징하는 신복이 있어서 무당은 각 거리마다 무복을 갈아입는다. 강신무의 굿에서는 무

엇보다도 신성함이 강조된다.

세습무는 혈통을 따라 대대로 사제권이 계승되어 인위적으로 성무한 무로서, 무속상의 제도적 조직성을 갖춘 무이다. 세습무의 특징으로는 혈통에 의해 사제권이 세습되었으므로 강신체험이 없어 영력이 없으며, 그래서 구체적인 신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고 집안에는 신당이 따로 없다. 이들은 사제권에 의해 일정지역 즉 단골당의 관할권을 계승한다.⁶⁾

세습무의 굿은 무당이 인간과 신의 중간 입장에서서 인간을 위해 신에게 빌고 신을 즐겁게 해주는 형식이다. 세습무가 주인 남부지역의 무복은 2-3종 정도이며, 호남지역 단골의 경우는 무복이 퇴화해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⁷⁾

습득무는 단순히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무속에 대해 개별적으로 학습을 하여 무속에 종사하는 무인으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2) 굿의 종류

우리 나라 무속에서의 굿이란 무당이 신을 모셔 놓고 풀어 먹이는 일종의 의식으로서, 굿을 진행하는 외형적인 양상은 지방이나 무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굿의 종류와 굿의 구조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성이 있다.

우리 나라의 모든 굿은 기본적으로 열두 거리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거리는 의식의 절차를 뜻하는 말이며, 각 거리마다 모시는 신을 달리한다. 그러나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굿은 굿의 종류에 따라, 또 무당에 따라 꼭 열두거리가 엄격히 지켜지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무당의 같은 굿이라 해도 때와 장소 또는 행하는 목적에 따라 굿의 내용과 의미가 다른, 일회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굿을 주관하는 무당이나 굿의 내용이 다르다 해도 각 거리의 기본절차는 동일하다. 각 거리마다 신 앞에 제물을 바치고 행하는 절차를 보면 크게 네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신과정으로 부정을 물리치고 해당신을 굿에 청해오는 과정이며, 둘째는 가무오신과정으로 청해온 신을 가무로써 즐겁게 대접하는 과정이고 셋째는 신의청취과정으로 초청된 신이 무당에게 내

려 공수(신탁) 및 신의 의사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고, 넷째는 송신과정으로 초청된 신을 본래의 장소로 돌려보내는 과정이다.

곳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는 위와 같은 과정을 각 거리마다 행하고 있다. 곳의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은 연구자의 관점과 기준에 따라 다르다. 살아 있는 사람의 삶에서 재난을 예방하거나 물리치고 길복을 구하기 위한 곳을 김인희의 분류방법에 따라 살펴보면 크게 집곳과 마을곳으로 구분하였다.⁸⁾

① 집곳

집곳은 한 가정의 변창, 길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규모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로, 절차가 간단하고 규모도 작으며 한시간 내외로써 끝낼 수 있는 비손이 있는데, 이는 의뢰자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행할 수 있으며 장소도 주부의 안방에서 행하며 일시를 특별히 택일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로, 비손보다 약간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며 여러 가지 음식물을 준비해서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기술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3~4시간을 요하는 고사와 푸닥거리가 있다. 이 의식은 아무리 입담이 좋은 주부라도 주관할 수가 없고, 무인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마지막으로, 집곳 중 가장 큰 규모의 큰곳이 있다. 무속계에서 일반적으로 무속제의를 '곳', '풀이', '석' 등으로 부르는데, 엄격히 구분하면 큰곳을 곳이라고 하고, 큰곳 속에 거리 또는 석이 포함되는 것이다. 무속의 제의 중 최대의 규모와 가장 복잡한 요건을 갖추어 여러 절차 절목을 이어간다. 큰곳은 계절에 따라 하거나 매년 또는 수년 간격으로 하는 정기적인 곳으로 맞이곳, 안택곳이라고도 부른다. 지방에 따라 채수곳, 절기곳 등 이름도 다양하지만 곳의 성격은 동일하다.

② 마을곳

부락의 수호신을 위하고 수호신의 가호를 빌어 부락민의 길복과 번영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 모든 재화를 소멸시키라는 소망을 결들이게 된다. 2년 내지 9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데 지방에 따라 명칭이 다양하다.

서울·경기지역에서는 도당곳, 대동곳, 부군곳, 서낭곳, 당곳, 당산곳이라고 부르며, 동해안에서는 별신곳, 골매기곳, 전라도에서는 수록제, 제주도에서는 영동곳 등 지역별로 분류하기 힘들 정도이다. 동일 지역에서도 몇 개의 이름이 혼용되는가 하면, 부락마다 명칭이 다르고, 또 같은 명칭이 여러 곳에 쓰이기도 한다.

2. 흥성지역 무속의 일반적 특징

우리 나라는 이미 조선 왕조에서부터 무속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기 때문에 무속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속에 대한 조사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충남 흥성지역의 무속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역시 대단히 희소하다. 단지 소화 7년에 발간된 村山智順의 「朝鮮の巫覡」⁹⁾에 단편적으로 기록되었을 뿐이다.

이 책자는 일본인인 村山智順이 당시 우리나라의 무속에 대해 현지조사하여 발간한 책자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 대한 기록이 간단하게 수록되어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무속에 관한 조사내용이 주로 기록되어졌긴 하나, 단편적으로나마 흥성지역의 당시 무속양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하여 흥성지역의 무속양상을 시대적으로 구분하여 근세와 현대의 양상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근세

우리 나라 무속인의 수를 조사한 소화5년 당시 무업자의 총수는 12,300여명으로 신분은 대부분이 상민이었으며, 여부가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보고되었다.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무격의 수는 1,226인으로 전라남도 1,945인, 경기도 1,865인, 평안북도 1,236인에 이어 절대수로는 4위였으나, 인구 10만인당 무격의 상대수를 보면 95인으로 경기도와 함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무인의 호칭에 대해서도 조사되었는데, 흥성에서는 무당, 손질, 경쟁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손질이란 순무당(Seun Moo Tang)과 동일하며 합장기도를 주로 하는 무당을 말한다고 되어있다.

이외에도 각 지역의 무속양상을 조사한 자료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홍성지역의 무속에 대한 내용도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기도와 점복으로 나누어져 있다.

기도에는 남무가 큰북 및 종을 쳐서 악마를 쫓아내는 독경과, 여무가 종을 울려 악마를 쫓아내는 굿과 여무가 양손을 합장하여 기도문을 암독해서 악마를 쫓아내는 비선이 있다.

점복에는 역서에 의하여 판단하는 팔괘와 어떤 일정한 문자를 해석하여 그것으로 인간의 길흉을 판단하는 효육 및 상에 꽤 많은 양의 물과 쌀을 올려놓고 그 쌀의 수를 손으로 나누고 방향과 거리에 의해 길흉을 판단하는 쌀점이 있다.

이와 같이 홍성지역의 무속은 소화5년경의 양상이 단편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이 조사자료에서의 기도란 당시 무속의 의식을 구분한 것으로 일반적인 굿을 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서 당시 무속에 대한 의식의 절차나 굿의 구조 등을 충분히 알 수는 없으나, 조사당시 홍성지역의 무인들은 점복과 굿을 병행하며 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굿은 남무가 행하기도 하고 여무가 행하기도 하였으나, 남무와 여무의 굿의 명칭을 독경과 굿으로 달리한 것을 보면 타 지역과는 달리 당시부터 홍성지역에서는 남무와 여무의 의식상의 차이가 있었음이 나타나고 있다.

점복에서는 홍성지역 역시 타 지역과 동일하게 주역이나 기타 점복을 행하는 방법을 학습한 역술인과 강신을 한 점술인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점술을 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단편적이거나,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홍성지역의 근세무속 양상은 현재의 무속양상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현대의 무속양상

한국 무속인들의 단체로는 '대한승공경신연합회'와 '한국무속문화인협회'가 있다. 홍성지역의 경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한승공경신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현재는 대부분이 새로 조직된 '한국무속문화인협회'에 가입하여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자체 연수도 하고, 친목활동도 하고 있다.

홍성지역에서 '한국무속문화인협회'에 등록된 회원의 수는 1997년도에는 129인¹⁰⁾이었으나, 현재 등록된 회원의 수는 남성무인이 62인이며 여성무인이 117인으로, 회원의 총수는 179인이다.¹¹⁾ 그러나 이 회의 회장인 강노심씨¹²⁾의 말에 의하면, 회에 가입하지 않고 무속활동을 하는 무속인도 약 130여명 정도일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현재 홍성지역에서 무업활동을 하고 있는 무속인의 수는 약 3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홍성지역의 무속의 성격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 우리나라의 무속의 양상에는 크게 강신무의 지역과 세습무의 지역으로 대별된다. 일반적으로 신이 몸에 내려 무인이 되는 강신무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강이북의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함경남도, 태백산맥 서쪽으로 한강 북쪽에 해당하는 강원도 등에서 발달하였으며, 혈통을 따라 대대로 사제권이 계승되는 세습무는 한강이남의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지방과 태백산맥 동쪽의 동해안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홍성지역의 무속의 특징을 보면 사제권이 세습되는 세습무의 지역이 아니며, 신이 내리는 강신체험을 하는 강신무가 주를 이루는 하나 선굿을 행하는 다른 지역의 무속과는 달리 좌경을 주로 하는 독특한 양상을 띠고 있다.

현재 홍성지역의 무속인들은 홍성지역에서 출생하여 홍성지역에서 거주하다 무업에 종사하는 무인들과 인근지역에서 출생하고 홍성지역에서 성장한 무인들, 타지역에서 출생은 하였으나 홍성지역에서 성장하거나 결혼하여 거주하게된 무인들이 주를 이루나, 요즈음에 와서는 타 지역에서 무업 활동을 하다 홍성지역으로 이주해온 무인들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타 지역의 무속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홍성지역에서는 무인의 명칭을 남자는 '법사', 여자는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중에는 경문을 배우고 역리를 공부하여 점을 하고 경을 읽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신병을 앓고 강신체험을 한 뒤에 신을 맞이하여 영력으로 점을 치고, 제의와 경문을 익혀 경을 읽는 법사나 보살이 훨씬 더 많다.

이들이 행하는 의식은 다른 지역의 의식이 서서 춤을 추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부분 앉아서 북을

두드리면서 경을 읽는 좌경을 위주로 하는데, 앉아서 하는 곳이라 하여 '앉은곳'이라고 하기도 한다. 앉은 곳을 행할 때 착용하는 무복은 일반적인 강신무의 곳에서와는 달리 평상복으로 한 벌을 입고 행한다. 무복을 입기도 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하는 선굿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들이 올리는 제의는 앉아서 북과 징을 치면서 경을 읽고, 신장대의 흔들림으로 신의 의사를 알아내어 액을 풀리치고 북을 부르며, 신의 뜻을 전하는 공수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홍성지역의 강신 독경자는 무당과 같은 강신체험을 하고, 무속의 내림굿과 같은 신굿을 거쳐 사제자가 된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신굿은 무속 보다는 독경신앙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노래 부르고 춤을 추며 굿을 하는 무당이 되지 아니하고, 좌경을 위주로 하는 법사나 보살이 된다. 이러한 까닭은 예로부터 홍성지역에는 무속이 약하고, 독경신앙이 널리 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홍성지역의 법사나 보살이 독경신앙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서울·경기지역의 무당과 같이 영력을 이용하여 점을 하며, 신단에 무신도를 걸며, 제의에서 무복을 입고 공수를 하는 것은 서울·경기지방의 무속의 영향이며, 최근에 와서 서울·경기지방의 무속의 영향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Ⅲ. 홍성지역 현존 무인의 무속양상 및 무복

1. 홍성지역 현존 무인

충청남도 홍성지역에서 무업 활동을 하고 있는 무속인들이 착용하는 신복, 즉 무속복식의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한국무속문화인협회' 회장인 강노심씨를 비롯하여 강옥자 무인, 최영애 무인, 유경자 무인, 서춘석 무인, 편종운 무인, 전용섭 무인, 조미란 무인, 서진강 무인, 그리고 안종자 무인을 조사하였다.

1) 강 노 심 (남, 55세)

- 조사일자 : 1999년 5월 24일 ~ 1999년 6월 14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65-1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오행에 의한 점복 및 좌경, 홍성지역의 고유한 무속양상을 학습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음.

2) 조 미 란 (여, 47세)

- 조사일자 : 1999년 7월 14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항리 산 1-1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굿, 무속이나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3) 서 진 강 (여, 61세)

- 조사일자 : 1999년 5월 27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126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좌경 및 선굿, 무속이나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4) 편 종 운 (여, 74세)

- 조사일자 : 1999년 5월 12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응암리 293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굿, 서울굿의 영향을 받음. 무속이나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5) 유 경 자 (여, 46세)

- 조사일자 : 1999년 5월 15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52-5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굿, 서울굿의 영향이 나타남. 무속과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6) 최 영 애 (여, 53세)

- 조사일자 : 1999년 5월 13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산2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굿, 서울굿의 영향이 나타남. 무속과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7) 강 옥 자 (여, 53세)

- 조사일자 : 1999년 6월 29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동리 226-12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긋, 서울긋의 영향이 나타남. 무속과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8) 안 종 자(여, 39세)

- 조사일자 : 1999년 5월6일 - 1999년 5월 20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 165-13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긋, 서울긋의 영향이 나타남. 무속과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9) 전 용 섭(남, 45세)

- 조사일자 : 1999년 7월 8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 미륵점술원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긋, 서울긋의 영향이 나타남. 무속과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10) 서 춘 식(남, 60세)

- 조사일자 : 1999년 6월 24일
- 거주지 : 충남 홍성군 광천읍 광천리 372
- 무속의 양상 : 강신무, 강신에 의한 점복 및 선긋, 서울긋의 영향이 나타남. 무속 및 무복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음.

2. 홍성지역 현존무인의 굿의 구조 및 무복

홍성지역에서 현재 무업활동을 하고 있는 무인들의 무속 양상과 무복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이 지역의 무속은 타 지역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지녀 선긋이 아닌 앉은긋이 주를 이루며, 앉은긋에서는 평상복을 입고 굿을 하기 때문에 무복이 발달하지 않았다. 현재 무업 활동을 하는 무인들은 무속에 대해 독학을 하거나 자신들의 신어머니로부터 학습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신의 계시에 의해 굿을 행하기 때문에 무인에 따라 각기 다른 굿을 행하고 있었다.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행하는 굿은 서울긋의 영향으로 무속양상이 서울긋과 비슷하게 변모하고 있

나 무인들은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무복에 대해서도 지식이 전혀 없어 무복을 만물상에서 구입하여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무복의 형태나 규격, 장식기법, 소재 및 색상 등이 무인들마다 차별화되어 있지 않고 거의 비슷하였다. 무복의 명칭 또한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인에 따라 행하는 굿의 명칭을 붙여서 착용하고 있었다.

연구조사대상 중 좌경을 주로 하는 3인을 제외한 7인의 굿의 구조와 각 거리에서 착용하고 있는 무복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홍성지역에서 현재 거주하며 무업활동을 하고 있는 무인들의 굿거리와 무복은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긋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서울긋은 12거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굿의 거리명도 부정거리, 제석거리, 대거리, 호구거리, 별성거리, 감응거리, 조상거리 만신말명, 구룡거리, 창부거리, 장군거리, 그리고 뒷전¹³⁾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홍성지역 무인들의 거리수나 거리명은 무인들이 각자 터득하여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찾아볼 수는 없다.

서울긋에서는 무복은 각 거리별 청하는 신을 상징하는 의복으로서 신의 격에 합당하다고 무인들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의복을 공통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나,¹⁴⁾ 홍성지역의 무속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굿에 대한 학습경험이 없으므로 각 개인이 생각하는 신의 격에 따라 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격에 따라 입는 무복에 공통점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무복에 대한 명칭은 일반적으로 굿의 거리명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무인들은 모두 전통복의 명칭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는 상태이며 자신들이 부르고 있는 명칭이 전통적이라고 생각한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복들의 명칭이나 각 거리별 착용하는 무복들이 무인에 따라 다르긴 하나 일반적으로 평상복을 비롯하여, 불사장삼, 첩리, 구군복, 원삼, 몽두리, 도포 및 갑옷 등이 주로 착용되고, 그 외에도 명칭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의복들이 착용되기도 하였다. 홍성지역 무인들에 의해 착용되고 있는 무복들 중 전통복을 기본으로 한 무복

<표> 곳의 구조 및 무복

편중운		유경자		최영애		강옥자		안종자		전용섭		서춘식	
곳거리	무복	곳거리	무복	곳거리	무복	곳거리	무복	곳거리	무복	곳거리	무복	곳거리	무복
부정거리	치마,저고리 (평상복)	주당물림	치마,저고리 (평상복)	부정거리	치마,저고리 (평상복)	부정거리	유,고 (법복)	본향산거리	홍철릭 (본향산의대)	부정거리	치마,저고리 (평상복)	부정거리	치마,저고리 (평상복)
칠성거리	황색동다리 (칠성복)	대감거리	남색전복 (대감옷)	불사거리	백장삼 (천존불사의대)	대신거리	백장삼 (대신복)	불사거리	백장삼 (불사의대)	대감거리	동다리, 남색전복 (대감옷)	가망거리	홍철릭 (가망의대)
산신거리	홍철릭 (산신복)	산신거리	홍철릭 (산신옷)	산신거리	홍철릭 (산신의대)	신장거리	남색전복 (신장복)	선왕거리	치마저고리, 홍면사포 (선왕의대)	산신거리	홍색전복 (산신옷)	산거리	홍철릭 (산신의대)
조상거리	옥색포 (조상복)	도사거리	옥색포류 (도사복)	조상거리	옥색포류 (조상의대)	불사거리	백장삼 (불사복)	창부거리	녹원삼 (창부의대)	조상거리	옥색포류 (도사복)	불사거리	백장삼 (불사의대)
대감거리	남색전복 (패자복)	칠성거리	백장삼 (칠성옷)	칠성거리	노랑몽두리 (칠성의대)	장군거리	갑옷 (장군복)	대신거리	노랑몽두리 (대신의대)	칠성거리	노랑몽두리 (칠성옷)	별상거리	녹원삼 (별상의대)
재수거리	홍색전복 (패자복)	불사거리	백장삼 (불사옷)	별성거리	녹원삼 (별성의대)	대감거리	남색전복 (대감패자)	장군거리	갑옷류 (장군복)	불사거리	백장삼 (불사옷)	신장거리	남철릭 (신장의대)
용왕거리	황포종류 (용왕복)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옷)	장군거리	갑옷 (장군의대)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옷)	별상장군거리	녹원삼 (별상의대)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옷)	대신거리	노랑몽두리 (대신의대)
삼불계석거리	백장삼 (도사복)	조상거리	옥색포류 (조상옷)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의대)	별성거리	녹원삼 (별성의대)	대감거리	남색동다리, 흑색전복 (대감의대)	장군거리	갑옷류 (장군옷)	성주거리	홍철릭 (성주의대)
장군거리	갑옷류 (장군복)	대신거리	남철릭 (대신옷)	재수대감거리	남색전복 (재수대감의대)	조상거리	옥색도포 (도사복)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의대)	별성거리	녹원삼 (별성옷)	조상거리	옥색포류 (조상의대)
별성거리	녹원삼 (별성복)	뒷전	치마,저고리 (평상복)	뒷전	치마,저고리 (평상복)	칠성거리	노랑몽두리 (칠성의대)	신장거리	남색동다리, 흑색전복 (신장의대)	성주거리	홍철릭 (성주옷)	대감놀이	남색동다리 (대감의대)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복)					산신거리	홍철릭 (산신의대)	구름거리	남색동다리, 흑색전복 (신장의대)	신장거리	동다리,남색 전복 (신장옷)	장군거리	남철릭 (장군의대)
뒷전	치마,저고리 (평상복)					뒷전	치마,저고리 (평상복)	조상거리	옥색포류 (조상의대)	뒷전	치마,저고리 (평상복)	선녀거리	백장삼류 (선녀의대)

들의 특성과 착용되고 있는 곳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뒷곳이 끝날 때 갑신을 풀어 먹이는 뒷전에서 착용한다.

1) 평상복

평상복으로는 우리 고유의 치마·저고리나 삼국시대의 유·고를 착용하며, 일반적으로 곳을 시작하기 전에 곳당을 정화시키는 주당물림, 부정거리

2) 불사장삼

- 치수 : 총길이 128cm(등길이 32cm, 치마부분 길이 96 cm), 화장 125cm, 품 52cm
- 재료 : 갑사(합성섬유, 흰색)

불사장삼과 어깨에 두르는 띠는 불교의 범의인 장삼과 가사를 본 따 만들어 무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서울곳에서는 불사거리나 제석거리 등 불교적인 색채의 곳거리에서 착용한다. 홍성지역의 경우 불사장삼은 고찰대상인 무인 모두 삼불제석거리, 칠성거리, 불사거리, 대신거리에서 착용하였고 있는데, 대신거리를 제외하고는 불교적인 신과 도교적인 신을 각각 상징하는 불사거리와 칠성거리 외에 대신거리에서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홍성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는 불사장삼을 <그림 1>에 보이는 안중자 무인의 무복을 통해 살펴보면, 형태적 특성으로 색상은 흰색에 상·하가 연결되어 있으며 하의에는 폭이 넓도록 주름이 잡혀져 있고, 앞길과 뒷길 밑부분에 홍색과 노란색의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으며, 양어깨와 등 부분에는 원형의 보 형태로 학이 수놓아져 있다. 소매는 넓은 광수이며, 팔꿈치 부분에는 굵을 할 때 팔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로로 트여져 있다. 깃은 쌍깃이며 흰색의 동정이 달려 있고 깃 가장자리에는 색동천으로 장식을 위한 선을 들렀으며 깃부분에 고름이 달려 있다.



<그림 1> 불사장삼(안중자 무인의 무복) (1999. 5. 18.)

양어깨에 두르는 청색과 홍색의 띠 형태의 가사와 가슴에 두르는 홍색의 대에는 화려하게 꽃, 학, 구름 등의 문양들이 수놓아져 있다. 머리에 쓴 고깔에도 꽃이 수놓아져 있으며, 가장자리 접어 올린 부분은 돌아가며 색동천으로 선이 쳐져 있다.

3) 철릭

- 치수 : 총길이 121 cm(등길이 33cm, 치마부분 길이 88cm), 화장 98cm, 품 58cm
- 재료 : 숙고사(합성섬유, 홍색·남색)

철릭은 서울곳에서는 격이 높은 신을 청하는 대거리와 구룡거리에서 착용하였는데,¹⁵⁾ 홍성지역의 무인들은 산신거리, 산거리, 대신거리, 본향산거리, 성주거리, 가망거리, 신장거리, 장군거리에서 착용하였다.

<그림 2>에 보이는 무복은 강육자 무인의 무복으로 우리 전통복의 명칭은 홍철릭이나 강육자 무인은 산신의대라고 부르고 있다. 색상은 홍색이며, 양어깨, 등 및 한삼부분에는 회(鱗)자문양과 용문양이 원형으로 금박되어 있으며, 앞뒷길의 밑단에는 모란꽃 형태의 무늬를 금박하였다.



<그림 2> 홍철릭(강육자 무인의 무복) (1999. 6. 29.)

형태적 특성으로는 상하의가 연결되어 있고 하상에는 주름을 넣어 폭을 넓게 하였다. 소매는 길고 넓으며 소매 끝에 흰색의 넓은 한삼이 부착되어 있고 팔꿈치 부분에는 굵을 행할 때 팔을 내놓고 무구를 들을 수 있도록 세로로 긴 트임이 있다. 깃의 형태는 원삼의 깃과 비슷하게 마주 보는 쌍깃이 달려 있고, 깃 가장자리에는 홍·청·녹·황의 색동천으로 접은 잣장식이 있고 흰색의 동정이 달려 있으며 고름이 달려 있다.

<그림 3>은 서춘식 무인의 무복인 신장의대로 청철릭이다. 이 무복은 강육자 무인이 착용한 홍철릭

과 색상만 달리할 뿐 규격, 소재 및 장식 문양이 동일하다.



<그림 3> 청철릭(서춘식 무인의 무복) (1999. 6. 24.)

4) 구군복

· 치수 :

- 등다리 - 총길이 112cm, 화장 71.5cm, 품 58cm
- 전복 - 총길이 107cm, 품 54cm

· 재료 :

- 등다리 - 숙고사(합성섬유, 남색)
- 전복 - 감사(합성섬유, 검정색)

전복과 등다리로 구성된 구군복은 서울곳에서는 별성거리와 신장거리에서 착용되었는데,¹⁶⁾ 홍성지역의 무인들은 대감거리, 구룡거리, 신장거리에서 착용하였다. 구군복으로 갖추어 착용하지 않고 전복만 착용한 경우가 있었는데 대감거리, 재수거리, 재수대감거리, 산신거리에서였다. 또한 등다리만 착용한 경우는 칠성거리, 대감놀이에서였다.

<그림 4>의 무복은 안중자 무인이 행하는 곳의 대감거리, 신장거리, 구룡거리(구룡거리)에서 착용하는 것으로, 이 날의 곳에서는 대감거리에서 착용하였으므로 대감의대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의복의 구성과 무복의 명칭상 구군복으로 보아야 한다.

형태적 특성으로, 속에 입은 등다리는 남색 길에 뒤부분이 막혀져 있으며 양 가슴부분과 앞길 밑단에는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으며 등에는 등근 보형태로 학문양이 수놓아져 있다. 소매는 끝동은 홍색이며 끝동보다 조금 좁은 쪽으로 연두색, 진분홍색,

흰색, 남색, 노란색의 색동 소매이며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다. 깃은 역시 쌍깃이며 깃에는 꽃봉우리가 수놓아져 있고 깃 가장자리에는 색동의 천으로 선이 쳐져 있고 흰색의 동정이 달려 있으며 폭이 넓고 긴 고름이 달려 있다. 겉에 입는 전복은 검은 색이며, 밑단에는 형태를 알 수 없는 꽃과 줄기가 수놓아져 있다. 깃은 쌍깃의 형태로, 꽃이 수놓아져 있고, 역시 깃 가장자리에는 색동천으로 장식선을 둘렀다.



<그림 4> 구군복(안중자 무인의 무복) (1999. 5. 18.)

5) 원삼

· 치수 : 총길이 105cm, 화장 95cm, 품 52cm

· 재료 : 숙고사(합성섬유, 녹색)

원삼은 서울곳에서는 주로 창부거리에서 착용하였는데,¹⁷⁾ 홍성지역의 무인들은 별상거리, 별성거리, 별상장군거리, 창부거리에서 착용하였다. 여기에서 별상과 별성은 동일한 거리의 명칭이다.

<그림 5>의 무복은 강육자 무인의 무복으로 별성거리에서 착용하므로 별성의대라고 부르고 있다. 형태적 특성으로는 녹색 길에 앞길 밑단에는 모란꽃과 모란꽃 봉우리문양으로 금박을 찍었으며,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회(黼)자 문양을 금박하였다.

소매는 흰색의 한삼이 달려 있고, 남색, 황색, 녹색, 진분홍색, 홍색의 색동으로 되어 있다. 깃은 홍색의 쌍깃이고 작은 모란꽃 문양의 금박이 찍혀져 있고 흰색의 동정이 달려 있다.



<그림 5> 원삼(강욱자 무인의 무복) (1999. 6. 24.)

6) 몽두리

- 치수 : 총길이 109cm, 화장 75cm, 품 55cm
- 재료 : 국사(합성섬유, 노란색)

몽두리는 서울곳에서는 만신말명거리에서 착용하였는데, 홍성지역의 무인들은 칠성거리, 대신거리에서 착용하였다.

<그림 6>의 무복은 안중자 무인이 행한 곳의 대신거리에서 착용한 의복으로 대신의대라고 부른다. 형태적 특성으로는 색상은 황색이며, 길의 가슴과 길의 밑부분에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으며, 등에는 보형태로 학이 수놓아져 있다.

소매는 저고리의 소매와 비슷한 꼭배래이며 모란꽃이 수놓아져 있다. 깃은 쌍깃이고 깃에는 꽃 봉우



<그림 6> 몽두리(안중자 무인의 무복) (1999. 5. 18.)

리가 수놓아져 있으며, 깃의 가장자리에 색동천으로 장식선을 들렀으며 흰색의 동정이 달려 있다. 여밈부분에는 깃 바로 밑에 고름이 달려 있다.

IV. 홍성지역 무복의 조형적 특성

1. 형태상의 특성

현재 홍성지역에서 무업활동을 하고 있는 무속인들은 서울·경기지역의 무속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무복에 있어서도 서울곳의 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이러한 무복들은 우리 나라의 전통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무인들이나 무복을 제작·판매하는 상인들이 전통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으므로 전통복들과는 형태적으로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봉제법에서 원삼을 제외한 모든 무복이 홀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1) 불사장삼

조선시대에 무복으로서 착용한 불사장삼은 일반적으로 불교적인 색채의 굿거리에서 착용하였으며 색상은 백색으로 소매는 통이 넓은 광수이고 팔꿈치 부분에 트임이 있고, 양어깨에 홍색의 가사를 걸쳤다.¹⁸⁾ 원래 불가의 장삼을 현재 보존되고 있는 사명대사의 장삼의 형태를 통해 살펴보면 상의하상식이며 치마의 주름은 오늘날 보는 맞주름 스커트와 같은 식으로 8개가 앞판 중심선에서 잡혀 있고, 안쪽과 겹쳐지는 부분은 외주름을 잡아 안쪽의 외주름과 하나가 되게 하여 의복구조의 대칭관계를 이루어 미적인 면을 나타낸 것 같다.¹⁹⁾

현재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불사장삼은, 색상은 흰색으로 전통복과 동일하나 형태에 있어서 사명대사의 장삼과는 달리 주름이 외주름으로 잡혀 있으며 팔꿈치 부근의 앞쪽으로 팔을 내놓을 수 있도록 트임이 있다. 깃은 쌍깃이 달려 있으며 폭이 4.5cm에 길이는 60cm와 70cm의 고름이 달려 있고, 길이는 종아리에 닿을 정도의 길이로 조선시대의 무복인 장삼이 발을 덮을 정도의 길이였던 것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원래의 장삼이 무인들의 활동의 편이를 고려하여 변

형된 것으로 파악된다.

2) 철 락

철락은 상하연철식의 구조에 옷고름을 상의에 달아 앞을 여미는 끈은 깃의 직령이고, 하상에는 많은 주름이 잡혀 있는 독특한 형태이다. 색상은 중종대 이후 상하 구별 없이 홍색이 애용되었으나, 영조대에 당상관은 남색, 당하관은 현청색, 그리고 교의 동가시 홍색이었으나 말엽에는 청색이 상례였다.²⁰⁾ 조선시대 무복으로 착용한 철락은 비교적 신의 격이 높은 곳거리에서 착용하였으며 색상은 남색과 홍색이 모두 사용되었다.²¹⁾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현재 착용하고 있는 무복으로서의 철락은 신의 특성에서 공통적인 면이 없으며 형태로는 상의하상식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일하며 사용된 색상도 남색과 홍색으로 전통복과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통복과는 달리 깃이 마주보는 쌍깃이며 품이 58cm인데 아래부분의 치마폭이 206cm로, 조선시대 상·하의 비율이 보통 2배 이상인 것에 비해 조금 좁은 편이다. 고름은 좌우 모두 너비가 7cm이며 길이가 84cm로 동일하다. 또한 소매 끝에 백색의 한삼이 달려 있으며 팔꿈치부분의 앞쪽으로 팔을 내놓을 수 있도록 트임이 있어 전통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구군복

구군복이라 하면 전립, 협수(동달이), 전복, 목화를 착용하고 전대, 통개, 슬책 등을 갖춘 복장을 말한다. 이러한 복장은 무관 최고의 복장이었으며, 왕의 행행시에는 대신이하 시위제신이 구군복을 입었다.²²⁾ 조선시대의 무복으로 착용된 구군복은 주로 신의 특성이 전투적인 신들이 주로 착용하였다.

현재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으로서의 구군복을 구성하고 있는 동다리에는 쌍깃이 달려 있으며 뒤트임이 없이 막혀 있어 전통복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색상에서도 남색 길에 소매 끝동은 다홍색이고, 연두, 분홍, 흰색, 남색 및 노랑색으로 된 색동소매가 달려 있는 것과 길이 황색인 동다리도 있다. 전통복에서 동다리의 색상이 주홍색 길에 붉은색 착수가 달린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동다리의 길에 입는 전복에는 동정은 없으나 쌍깃이 달려 있어, 깃이 없는 전통복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색상에 있어서도 남색, 홍색, 검정색 등으로 다양하다.

4) 원 삼

원삼은 궁중에서 황후, 비, 빈, 내명부 등을 비롯하여 일반부녀들이 착용한 예복이다. 조선시대 말기에 황후는 황원삼을, 왕비는 홍원삼을 착용하였고, 녹원삼은 공주, 응주, 관녀 및 사대부의 부녀자들이 예복으로 착용하였으며, 일반서민은 혼례복으로 착용하였다.²³⁾ 원삼의 형태를 보면 뒷자락이 앞자락보다 길어서 땅에 깔릴 정도이며, 소매는 다홍색과 노랑색으로 된 색끝동과 흰색 한삼이 달려 있다. 또한 깃은 넓게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²⁴⁾

현재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으로서의 원삼은 녹색 길에 쌍깃이 달려 있는 점은 전통복과 일치하고 있다. 소매의 너비는 51cm로 약간 좁은 편이며 소매의 색동은 남색과 노랑색, 녹색, 진분홍색 및 다홍색으로 되어 있으며, 길의 길이는 앞·뒤 모두 종아리 정도의 길이로 전통복과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원삼의 안감도 걸감과 동일한 녹색으로 되어 있다. 봉제법에 있어서도 걸감과 안감 길의 도련과 밑단, 옆선 등의 안에 두르는 단을 두르지 않았으며, 앞여밈 부분에 너비 2cm에 길이 40cm의 고름을 다는 등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전통복의 봉제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5) 몽두리

몽두리는 조선시대 서민계급 여인들의 예복으로서 양반부녀의 백장삼에 대하여 서민녀의 백의는 몽두리였다고 보는 것이며, 여기에 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저고리와는 다른 일종의 예복으로 길이가 길며 백색이었다고 생각된다.²⁵⁾

조선시대 무복으로 착용된 몽두리는 깃은 직령이며 흰색 동정이 달려 있고, 고름으로 여미며, 소매는 통이 넓은 광수이고, 길이는 길고 가슴에 홍색의 대를 매고 있다. 색상은 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아마도 무조신의 격을 높이기 위해 황제의 색인 황색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²⁶⁾

현재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으로서의 몽두리는 깃이 마주보는 쌍깃이며 두리소매이며 소매의 너비는 29cm로 비교적 좁은 편으로 깃과 소매에서 전통복과 차이가 나고 있다.

2. 장식상의 특성

조선시대 무인들이 신의 의복으로 착용한 무복은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의복과 형태면에서 뿐만 아니라 장식면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었다.²⁷⁾ 그러나 현재 홍성지역의 무인들에 의해 착용되고 있는 무복은 전통복과는 달리 자수를 놓거나 금박을 찍어 전체적으로 장식성이 높다. 현재 무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은 무인 개개인이 주문·제작한 것이 아니라 시중에 이미 제작되어 유통되고 있는 의복들을 구입하기 때문에 자신이 선호하는 장식기법이나 문양을 택하고 있다. 즉, 각 무복에 일정한 장식기법만이 사용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인에 따라 자수장식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금박으로 장식되어 있는 무복을 구입하는 등 취향에 따라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에 들어 기술의 발달로 손쉽고 저렴하게 장식이나 문양을 옷에 다양하게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전통복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인들이나 제조업자들이 장식과 문양의 상징성을 고려하여 택하기보다는 굿의 시각적 효과를 돋보일 수 있는 문양이나 장식을 임의로 택한 결과로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홍성지역의 무인들에 의해 착용되고 있는 무복에서의 장식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 중색동장식은 의복에서 뿐만이 아니라 깃 가장자리의 선장식에도 사용되었다. 전통복에서는 색동의 선장식을 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무복에는 원삼을 제외한 불사장삼, 철릭, 구군복, 몽두리의 깃 가장자리가 모두 선으로 장식되어 있다.

선을 두르는 방법으로는 색동의 천을 3mm 정도의 폭으로 가늘게 접어 선을 두르는 방법과 삼각형의 잣모양을 잇대어 장식하는 방법이 사용되었다. 잣모양 장식은 녹색, 홍색, 황색 및 남색의 천을 접어 한 색상에서 두 장씩 배치하여 반복하고 있으므로 색동의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러한 선장식은 그 자체

만으로도 장식성이 있으나 색동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녹색, 홍색, 황색 및 남색 직물을 사용하여 잣모양을 장식하여 무복의 화려함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색동장식은 등다리의 소매에서도 나타난다. 전통의 무복에서의 등다리의 소매는 길과는 다른 색상을 사용하나 색동의 소매는 아니다. 그러나 현재 홍성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는 등다리의 소매는 노란색, 남색, 흰색, 진분홍색, 및 연두색이 배치된 색동소매이며, 끝동을 홍색으로 하며 홍색 또한 색동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무복에서 색동장식은 굿을 할 때 원색의 시각효과로 주술적인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굿에서 무당이 착용한 포의 색동소매는 신과 교통하는 주력의 상징으로 수용되었는데,²⁸⁾ 현재 착용하고 있는 무복들은 색동의 주술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식적인 효과를 높이는 요소로도 사용되었다.

홍성지역 무인들이 착용한 무복의 장식요소 중의 하나인 자수장식은 전통적인 무복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현재 홍성지역의 무복에는 사용되어 무복의 화려함을 더해주고 있다. 자수에 사용되고 있는 문양으로는 모란, 구름, 학, 산 및 사슴 등으로 빨강, 녹색 및 흰색의 실로 수놓아져 대단히 장식성이 높다. 특히 불사장삼과 가사의 경우에는 양 어깨, 등, 앞·뒷길의 밑단 및 가사에 수를 놓았으며 홍색의 대에도 꽃과 구름을 수놓았고, 깃에도 작은 모란꽃을 수놓아 전체적으로 대단히 화려하다.

자수를 놓은 무복 중 구군복의 등다리는 소매에 흰색과 홍색의 실을 사용하여 모란꽃을 수놓았으며 길에도 수를 놓았다. 등에는 보모양의 원형 안에 구름문양과 쌍학을 수놓았으며 깃에는 흰색과 홍색을 사용하여 불꽃문양을 수놓아 장식성을 높이고 있다. 전복은 검정색 길의 밑단에 홍색과 황색 및 흰색을 사용하여 장미꽃 모양의 꽃문양과 흰색과 녹색을 사용하여 꽃줄기를 수놓았으며, 깃에도 노랑, 빨강, 흰색 및 남색의 매화꽃과 비슷한 꽃을 수놓았다. 이외에 몽두리의 소매에도 모란꽃을 수놓았으며 등에도 보형의 원형안에 구름과 쌍학을 수놓았다.

자수장식에 사용된 실의 색상들은 빨강, 남색, 노랑색, 흰색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색상들은

양의 색상들로서, 무속에서의 귀신은 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무복에 장식된 자수장식들로 음양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복에 장식된 금박장식 역시 전통적인 무복에서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현재 홍성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에는 사용되고 있는 장식기법으로, 전통 금박이 아닌 전사금박이 사용되고 있다.

문양으로는 철릭의 길에는 매화모양의 꽃과 꽃나무 문양이 사용되었으며 양어깨, 등, 한삼의 앞 뒤 부분 보형의 원안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작은 동물문양이 금박 되었으며, 길의 밑단에는 국화꽃 문양으로 금박이 찍혀져 있다. 또한 강옥자 무인의 무복인 원삼에도 모란꽃 문양과 원삼의 가장자리를 둘러가며 희(黼)자 문양이 금박 되어있다.

V. 결 론

충청남도는 이미 근세에도 무속이 성행했던 지역으로 소화 5년경에는 전체 인구에 비례한 무속인의 수가 서울·경기지역과 함께 1위를 차지하였다. 근세 홍성지역에서는 무속인의 호칭을 무당·손질·경쟁이라고 불렀으며, 무속의 의례는 크게 기도와 점복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기도에는 독경·굿·비선이 있었으며, 점복에는 팔괘·육효·쌀점 등이 성행하였다.

현재 홍성지역의 무인들은 강신체험으로 무속에 입문한 무인과 역학을 학습하여 점복을 행하는 무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성지역 본래의 굿은 경을 읽고 북이나 징을 치며 앉아서 행하는 앉은굿으로, 앉은굿을 관할하는 사제자 역시 강신체험을 한 무인이나 서울굿의 양상과는 다르기 때문에 무복으로 특별한 신복을 착용하지 않고 평상복을 착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굿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속인들은 서울굿의 영향을 받아 굿을 행하기 때문에 서울굿 무복의 영향을 받은 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현재 홍성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들 중 전통복에 근거를 둔 무복으로는 불사장삼, 철릭, 구군복, 원삼 및 몽두리로서, 무복의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① 굿의 구조나 형태가 서울굿의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무복 또한 서울굿에서 착용되는 무복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홍성지역의 무인들도 굿의 각 거리마다 청하는 신을 상징하는 신복으로서 무복이 착용되었다. 그러나 신의 상징에 있어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라 무인에 따라 자신의 주관대로 신을 해석하여 그에 맞는 무복을 착용하고 있다.

② 홍성지역의 무인들이 착용한 무복 중 서울굿에서 착용하는 무복과 신의 특성이 일치하는 것으로는 불사장삼과 원삼으로, 불사장삼은 불교적인 신을 청하는 불사거리와 도교적인 신을 청하는 칠성거리에서 착용하였고, 원삼은 별성거리와 창부거리에서 착용하였다. 서울굿의 무복과 신의 특성이 일치하지 않는 무복은 철릭과 구군복, 몽두리로서, 철릭은 산신거리·성주거리·신장거리·장군거리 등에서 착용하였고, 구군복은 대감거리·산신거리 등에서 착용하였으며, 몽두리는 칠성거리·대신거리에서 착용하였다.

③ 무복의 대부분이 전통복이라고는 하나 조형상 전통복과 일치하지 않았다.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는 부위는 깃 부분으로 불사장삼, 철릭, 동다리, 전복, 원삼 및 몽두리 모두 쌍깃으로 되어 있어, 원삼을 제외한 모든 의복이 깃 부분에서 전통복과는 차이점을 나타냈다. 형태상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무복은 동다리와 원삼인데, 동다리는 뒤트임이 없으며 원삼은 앞길과 뒤길에 차이가 없다.

④ 전통복에 근거를 둔 무복이더라도 색상의 선택에 있어 다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복의 색상에서 홍색, 남색, 흑색 등이 사용되었으며, 동다리의 길 색상도 황색, 남색이 사용되었고, 동다리의 소매에도 색동을 사용하거나 홍색을 사용하는 등 무인의 개성에 따라 색상선택이 다양하였다.

⑤ 무복선택에 있어 개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무인들은 자수가 놓여져 있거나 금박이 찍힌 화려한 무복을 착용하여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있다. 장식 문양으로는 모란·국화·매화 등 꽃문양이 주를 이루고, 그 외에도 사슴·학·구름 등의 문양이 사용되고 있다.

⑥ 무복에 음양의 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깃 가

장자리 장식이나 소매에 색동요소를 사용하여 무복으로 양을 상징하게 하여 음을 상징하는 굿거리와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⑦ 홍성지역 무인들의 무복착용방법이 단순화되고 있다. 전통복의 착용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무복은 구군복으로 7인의 무인 중 6인의 무인이 전복만을 착용하거나 등다리만을 착용하여 전통복의 착용법과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홍성지역에서 현재 착용되고 있는 무복들은 전통복과 달리 형태가 변화되었으며 또한 장식성이 높아지고 착용법이 단순화되어 전통복과는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활동의 편의성을 추구하고, 또 다양한 장식과 문양들을 기술의 발달로 손쉽게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굿의 시각적 효과를 원하는 무인들이 장식성이 높은 무복을 선호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무인들은 자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무복들이 우리 고유의 전통복이라고 여기고 있으며,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복들이 가장 전통적인 무복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통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무복의 명칭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명칭을 붙이고,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무속인들은 계속 탄생할 것이고, 이들은 현재 착용되고 있는 무복들이 우리의 전통복이라고 인식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복이 왜곡된 채로 계승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홍성지역에서 착용되고 있는 무복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무인들에게 우리의 무속에 대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식분야에서 그나마 전통복식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무속인들이 전통복식을 정확하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식에 대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실 무복의 원형 훼손이 홍성지역 만의 문제일리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무속복식에 대한 고찰이 추후과제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무인들이 맞춤에 의한 제작보다는 주로 기성

복의 형태로 무복을 구입하기 때문에 업계의 무복 제작과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및 미주

- 구미래, 한국인의 상징세계, 교보문고, 1992
- 金英淑·孫敬子, 韓國服飾圖鑑, 藝耕産業社, 1984
- 金仁會, 韓國巫俗思想研究, 集文堂, 1988
- 金泰坤, 한국의 무속, 박물관 신문, 9월호, 1985
- 金泰坤, 韓國의 巫俗, 대원사, 1993
- 白英子, 韓國의 服飾, 경춘사, 1993
- 白英子, 柳孝順, 무당내력을 중심으로 한 무속복식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제 5집, 1986
-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 柳孝順, 韓國의 巫俗服飾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 柳孝順,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 복식 제32호, 한국복식학회, 1997
- 柳喜卿, 韓國服飾史 研究, 梨花女子大學校出版部, 1975
- 李順洪, 韓國婚禮儀式에 關한 服飾研究, 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8
- 任榮子, 韓國宗教服飾에 關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89
- 崔吉城 譯(秋葉隆 著),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 최운식 외, 홍성의 무속과 점복, 홍성문화원, 1997
- 村山智順, 朝鮮의 巫覡, 朝鮮總督府, 昭和7年

- 1) 1825년 또는 1885년 서술된 것으로 추측되는 「무당내력」이라는 책에서는 “단군신화”를 무속의 시원으로 보고있으며, 이능화·박계홍도 같은 견해이다. 그 외 김인회·유동식도 “단군신화”를 무속의 원형으로 보고 있으나 임석재는 「한국무속연구서설」에서 “단군신화” 이전에서 무속의 원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2) 김태곤, 한국의 무속, 대원사, 1993, pp.91-103.
- 3) 赤松秋葉의 조선무속의 연구를 인용한 유동식,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연세대학교출판부, 1989, p.280.
- 4) 秋葉隆(최길성 역), 조선무속의 현지연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7, pp.63-65.
- 5) 김태곤, 앞글, pp.147-148.
- 6) 앞글, p.144.
- 7) 앞글, p.148.
- 8) 김인회, 한국무속사상연구, 집문당, 1988, p.201.
- 9) 村山智順, 朝鮮의 巫覡, 朝鮮總督府, 昭和7年.
- 10) 최운식 외, 홍성의 무속과 점복, 홍성문화원, 1997, p.20.
- 11) 1999년 10월 5일 조사당시 한국무속문화인협회의 등록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 수임.

- 12) 강노심씨는 현재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서 거주하며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남성 무인이다. 1946년 부여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계속되는 강신체험을 하였으며, 26세부터는 오행에 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약 7년 정도를 연구하고, 그 때부터 오행을 바탕으로 한 점을 치게 되었다. 현재에는 점과 아울러 경을 읽고 굿을 하는 홍성지역의 굿인 앉은굿을 행하며, 한국무속문화인협회의 홍성지역 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 13) 백영자, 유효순, 무당내력을 중심으로 한 무속복식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논문집 제5집, 1986.
- 14) 앞글, p.150.
- 15) 앞글, p.146.
- 16) 앞글, p.147.
- 17) 유효순,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 복식 제32호, 한국복식학회, 1997, p.115.
- 18) 유효순, 한국의 무속복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p.225-227.
- 19) 임영자, 한국종교복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9, pp.113-114.
- 20) 백영자, 한국의 복식, 도서출판 경춘사, 1993, pp.194-195.
- 21) 유효순, 앞글, p.229.
- 22) 김영숙·손경자, 한국복식도감(상), 예경출판사, 1984, p.202.
- 23) 백영자, 앞글, p.24.
- 24) 이순홍, 한국혼례의식에 관한 복식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p.213.
- 25) 유희경, 한국복식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5, p.508.
- 26) 유효순, 앞글, p.232.
- 27) 앞글, p.115.
- 28) 김태곤, 한국의 무속, 박물관 신문, 9월호, 1985.